

5월 돈가는 2,400~2,500원/kg으로 전망



최동수 부장
(제일제당 육가공업팀)

1. 구제역 발생과 그 영향

3월 27일 정부의 구제역 발표 이후 국내 돈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2,000원/kg(지육가) 수준으로 하락하고 말았다.

그리고 지역별로 돈가차를 보이는 것은 구제역 발생 지역별로 방역 범위를 설정함에 경상도 지역은 구제역 발생이 없는 반면 충청도, 경기도는 발생지역이 많아 상대적으로 서울 도매시장에 상장두수가 적은 것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.

지금까지 다행스럽게도 돼지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다. 그러나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.

구제역 발생후 영향은 ① 육류소비감소 (정육점의 육류 판매가 상대적으로 대형유통이나 외식보다 크게 나타남) ② 대만의 구제역 발

생후의 변화와 동일하게 계육소비의 증가 ③ 특이하게도 생선류(특히 생선회)의 소비 증가이다.

그리고 돈육 가공업체는 ① 처리두수의 감소 (30~50%) ② 수출 등·안심 재고체화 ③ 생산성 악화 (처리두수의 감소가 주요인) ④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생존의 위기 ⑤ 수출중단으로 인한 규격돈의 개념 변화와 부위별 수출 및 규격 변화가 있을 것이다.

2. 구제역 발생 이후의 예상 시나리오

가. 돼지에는 발생되지 않고 소에만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

유통업체 및 가공업체는 육류 소비 감소의 장기화로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고, 국내돈가 또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.

구제역 발생후 영향은 ① 육류소비감소 (정육점의 육류 판매가 상대적으로 대형유통이나 외식보다 크게 나타남) ② 대만의 구제역 발생후의 변화와 동일하게 계육소비의 증가 ③ 특이하게도 생선류(특히 생선회)의 소비 증가이다.

그 이유로는 현 보유 국내산 및 수입산의 재고 체화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.

나. 돼지에 전염될 경우

3개월 이내 국내관련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고,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각할 것임. 그러나 4/4분기 부터는 양돈 및 유통은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며, 일시적 육류 소비구조가 변경되어 새로운 유통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.

또한 돈육 및 우육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국내 돈가는 단기간 폭락과 폭등이 있을 것이다.

농가들은 사육심리는 약화되어 농가 자체 및 외부로의 업종전환이 이루어 질 것이며, 대일 수출 재개 예상시기도 점차 늦어지고, 우리나라는 육류 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.

다. 1개월 이내 구제역 방역이 완료될 경우

국내 양축 및 전 관련 산업이 원하는 경우이다. 그러나 사육 심리는 다소 위축되나 단기 일 내에 회복될 것이고, 정부 및 민간 단체에서 육류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시점에서 볼때 국내 1차 가공업체 관련산업의 부분적 구조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.

3. 5월 돈가

앞에서 살펴본대로 예상 시나리오별 돈가는 확연히 차가 날 것이다.

그리고 4월 말까지 정부의 정책이 확고해지고 각종 방안이 실행되면서 돈가는 회복세가 예상되나 최대의 변수는 구제역 확산 여부와 소비 동향이라 생각된다.

그러나 여러 여건을 감안할때 5월 돈가는 2,400원/kg~2,500원/kg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.

이는 육류 소비나 돈육재고가 돈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심리적 안정 돈가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.

4. 기타

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국내 1차 육가공 업체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현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안타깝다.

1차 가공업체가 매일 출하되는 원료돈을 소화해 내지 못한다면 국내 돈가 회복은 요원하기 때문이다.

수출 부위의 판매 활성화와 육류에 대해 소비 확대가 화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. **양돈**

